

광주시-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협업

올해부터 지능형 공장 50곳 추진
고도화단계 30곳 중기부와 연계
기초단계 20곳 삼성전자와 협업
사물인터넷·AI·빅데이터 등 적용

광주시가 올해 50여곳의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기초단계로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대·중소 상생형(삼성형) 스마트공장을 전국 80곳 가운데 20곳을 광주지역에 유치, 기업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50개 기업(고도화 30곳, 기초 20곳)에 대해 '지능형 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능형 공장은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제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장이다.

광주시는 올해 고도화단계 30곳, 기초단계 20곳 등 총 50개 기업의 지능형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고도화 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능형 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별도 협약을 통해 구축비용의 일부(총사업비의

20% 이내,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한다.

기초단계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며, 기업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로 30%는 삼성전자가, 50%는 광주시가 지원하고 자부담률은 20%이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전자와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 현장 제조전문가 3인이 지원기업에 8~10주간 상주하며 과제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품질·생산성·물류·환경 등 분야별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금형·가공·자동화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기업까지 동반 혁신에 나서 해외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을 갖추도록 패밀리혁신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삼성전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삼성전자 기반시설을 활용한 인력양성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지능형 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고도화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365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키오프' 행사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지역기업에 삼성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 협의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삼성형 기초단계 전국 80개사 중 20개사를 광주 지역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15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삼성형 지능형 공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업모집은 이달말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광주시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바란다"며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inilbo.com

전남 다문화가구원 5만 시대 "이주여성 적극 지원"

전남도가 다문화가구원 5만 시대를 맞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다문화가정 가구수는 1만5666세대로 전국의 3.9%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다.

가구원수는 5만1131명으로, 전국 다문화가구원의 4.4%(7위), 전남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여성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을 포함해 1만343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과 운영 △다

문화 엄마학교 운영 △국적 취득비용 △맞춤형 취업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또 대다수 지원책이 가족센터나 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출신 전남도청 공무원이 해당 시·군 가족센터 모국어상담사와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개인별 상담을 진행,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의·애로사항 수렴 후 다문화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베트남 37명과 필리핀 6명, 캄보디아 4명, 태국 3명 등 모두 5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달 중순부터 희망하는 달에 맞춰 현장 상담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세계보건의원날 광주 시민들과 대학생 등이 지난 12일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에서 북구보건소 주최로 열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에서 혈압과 혈당, 올바른 손씻기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일 세계 보건 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양배 기자

전남 친환경 유기질비료, 베트남 첫 수출길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베트남 첫 수출길에 올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자체 개발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소수나다 펠렛비료' 220톤이 최근 베트남으로 수출됐다.

소수나다 펠렛비료는 가축 분뇨비료 수출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어 수출이 까다로운 품목이지만 봉강친환경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 수출이 성사됐다.

한국 농산물이 최근 동남아에서 주목받으며 비료 등 각종 농자재에 대한 관심도

당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가 농촌의 오염원이 아닌 수출 제품으로서 친환경비료 원료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봉강친환경은 2008년 창업해 ISO 22000 인증, 유기질비료 제조시스템 특허 등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 친환경농가 증가와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박광기 봉강친환경 대표는 "올해 4000톤 수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농축산물 금요직거래장터 개장

광주시가 농산물 이용 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금요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2024년 농축산물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식'을 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도시동과 농촌동을 연결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도·농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금요직거래장터는 광주시와 농협 광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광주지역 15개 농·축협이 참여한다. 매주 금요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단, 무더운 여름인 8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금요직거래장터에서는 시기에 따라 할인품목을 달리한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를, 6~7월 휴가철에는 수박·삼겹살을, 9~10월에는 사과·배 추석 제수용품을, 11월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올해 금값이 된 사과와 배 1톤 가량을 시중가보다 30% 할인 판매했다. 우리 지역 농가와 농·축협이 생산·가공한 쌀, 과일, 채소류, 육류, 특산물 등 50여개 품목의 우수 농축산물을 시중가보다 최고 10~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 개장식에는 룰렛 돌리기, 락메치기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제공 행사도 함께 열렸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G-유니콘 육성기업'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에스오에스랩, 예비심사 통과
북미지역 실증 등 지원효과 '뚜렷'

광주시의 'G-유니콘 육성기업' 중 한 곳인 '㈜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해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에스오에스랩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의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노력과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유니콘 육성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광주시가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유치 판로지원 등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G-유니콘 기업 선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에스오에스랩은 G-유니콘육성프로그램인 글로벌(북미) 실증(PoC)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시애틀 수요기업(메트롤라)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대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노베이션) 등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규모 확대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지역 투자기관인 광주연합기술지주와 전남대기술지주가 운영하는 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상장 전 자본투자(Pre-IPO) 단계부터 손조롭게 상장 준비를 마쳤고,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이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확정됐다.

에스오에스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라이다(LiDAR) 기술 특허를 보유한 지역 기업이다. 자율주행차용 '라이다(LiDAR)'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목표에 도전, 2020년 9월 박셀바이오 이후 3년6개월만에 지역기업의 코스닥 예비심사 승인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

라이다는 광원을 이용해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광주시는 올해도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을 5월 선정, 최대 3억원 이내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개발공사, 창립 이래 최대 흑자 기록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이래 20년 만에 최대 경영성과를 거뒀다.

14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2023년 회계결산 결과, 토지 판매와 원가관리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 579억원으로, 지난 2004년 창립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재무적 안정성도 한층 강화됐다. 2023년말 부채비율은 47%로 낮아져 직전 10

년 중 가장 안정적이다.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금융부채 비율도 37%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분양토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리스크관리체계 고도화로 사전에 이익감소 요인을 예측, 사업별 공정률 관리와 철저한 원가 심사 등 종합적 재무관리를 이행한 점이 흑자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산단드림팀'을 구성,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선 결과 영암 대불국가산단의 경우 완판 신화를 이뤄냈다.

장충모 사장은 "개발이익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특화형 미래산단 조성 등 지역 발전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재 기자